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하편 ◀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고대 문학

- *주몽신화 (30문제)-----1쪽
- *공무도하가 (30문제)-----21쪽

(2) 중세 문학

- *찬기파랑가 (29문제)-----34쪽
- *청산별곡 (31문제)-----48쪽
- *경설 (21문제)-----63쪽
- *시조 세 편 (31문제)-----75쪽
- *사미인곡 (32문제)-----89쪽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 *어이 못 오던가 (29문제)-----106쪽
- *홍보전 (32문제)-----118쪽
- *절명시 (6문제)-----137쪽

(4) 근현대 문학

- *초혼 (31문제)-----140쪽
- *만세전 (30문제)-----157쪽
- *백록담 (13문제)-----181쪽
- *광장 (18문제)-----192쪽
- *원고지 (28문제)-----206쪽
- *벼 (13문제)-----229쪽
- *내 여자의 열매 (3문제)-----240쪽

5.문학의 가치

- *다시 느티나무가 (10문제)-----243쪽
- *바퀴벌레는 진화 중 (4문제) -----251쪽
-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4문제) -----254쪽

◆빠른 전체 정답-----258쪽

◆해설-----261쪽

교재 버전: 2021.02.10

“찬기파랑가” 분석 정리

작품 기관

간체	10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서정적, 예찬적
제재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
주제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
특징	①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함. ②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함. ③ <제망매가>와 더불어 가장 서정성이 높은 향가 작품으로 평가됨.

작품의 구성

1~5행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함.
6~8행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음.
9~10행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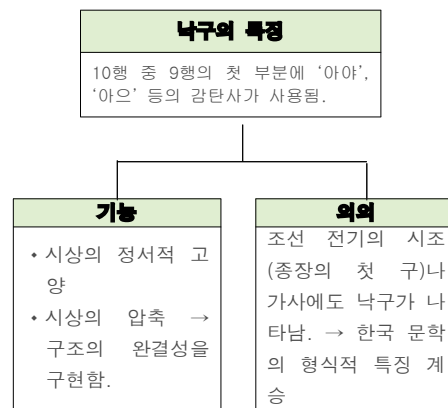
핵심 1 향가의 감성적 특징

기원	신라의 대표적 시가이며 향찰로 기록함.
전기	8~10세기 무렵 활발하게 창작·소통됨.
형식	4구체, 8구체, 10구체
특징	• 민요에 바탕을 둔 작품에서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성격이 다양함. • 승려, 화랑 등 지식인 계층이 대체로 향유함.

핵심 2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잣나무 가지	↔	눈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 → 기파랑의 높은 절개	대립	시련, 역경, 부정한 세력 등

핵심 3 '낙구'의 기능과 의의



늦겨곰 바라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불간 돈다리 <small>돈(鎊)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small>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리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물이 가른 물서리어희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이 즈시울시 수프리아 <small>모습과도 같은 ▶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small>	기랑(耆郎)의 모습이울시 수풀이여,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함.
일오(逸烏) 나릿 적버기 <small>낫물의 이름 화자가 있는 공간</small>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낭(郎)이 지나시던
마스비 그슬 좇느라져 <small>고(高) 곧</small>	마음의 것을 좇고 있노라.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있음.
아야(자식가지) 노포 <small>낙구의 김탄사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small>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식 모돌 두풀 곳가리여 <small>눈(시련, 역경) 잣나무의 윗가지 부분이 기파랑의 고결처럼 보임</small>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함.

“찬기파랑가” 학습 활동 문제

1 찬기파랑가 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적 화자는 일오내 자갈 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

(2) 다음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가지	눈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인품)	장애물, 고난, 역경

2 <찬기파랑가> 를 통해 향기의 길터적 성격과 흐름을 살펴보자.

(1) 다음은 향기인 <헌화가> 와 <처용가> 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찬기파랑가> 와 함께 비교하며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기의 형식에 대해 말해 보자.

<p>㉠ 자쫓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노옹(牽牛老翁) 지음, 김완진 해독, <헌화가(獻花歌)></p>	<p>㉡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지음, 김완진 해독, <처용가(處容歌)></p>
-----------------------------------------------------------------------------------------------------------------------	-------------------------------------------------------------------------------------------------------------------------------------------------------------

〈헌화가〉

	4구체 향가
성격	민요적, 서정적
제지	수로 부인, 꽃
주제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연정
특징	①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보여 줌. ② 가정법과 자연물(꽃)을 통해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냄.

■ 〈처용가〉

길이	8구체 향가	성격	주술적
제지	역신(疫神)의 침범		
주제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냄.		
특징	①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逐邪)의 노래임. ② 영탄을 통해 분노와 슬픔, 체념과 관용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냄.		

〈찬기파랑가〉는 10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헌화가〉는 4행, 〈처용가〉는 8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향가는 행의 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눈다.

(2) 다음 시조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찬기파랑가〉 제9행의 ‘이야가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 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뭍이런가 호노라.

길이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회고적, 감상적
제지	오백 년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특징	① 대조법을 활용하여 무상감을 부각함. ②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찬기파랑가〉 9행의 ‘이야’와 제시된 시조 종장의 ‘어즈버’를 통해서 두 작품은 형태적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구체 향가의 낙구와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배치되어 유사한 결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감탄사는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된 기능을 갖는다. 감탄사를 계기로 하여 앞에서 노래했던 사물이나 풍경에 시적 화자가 부여한 의미가 진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찬기파랑가〉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借字表記)의 방식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이와 같은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한자에 의존하여 문학 작품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향가 역시 한자를 활용한 향찰로 표기되었는데, 향찰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기록한 방법이다. 따라서 향가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 시가 작품이 우리말로 어떻게 불렸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咽鳴爾處米 늦겨곰 부라매
 露曉邪隱月羅理 이슬 불간 ㄷ라리
 白雲音逐干浮去隱安支下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沙是八陵隱汀理也中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矣兒史是史藪邪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逸鳥川理叱磧惡希 일오(逸鳥) 나릿 지벽괴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心未際叱勝逐內良齊 마음미 ㄷ솔 좃노라져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아야 자싯 가지 노포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누니 모돌 두폴 꽃가리여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갖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곁이여.

- 충답사 지음, 김완진 해독, '찬기파랑가'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쫓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견우 노옹(牽牛老翁) 지음, 김완진 해독, <헌화가(獻花歌)>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지음, 김완진 해독, <처용가(處容歌)>

- ㉠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차자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 ㉡ 항가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 ㉢ 그리움, 구애, 축사(逐邪) 등 소재와 정서가 다양하다.

- ㉠ 서정적인 것, 주술성을 띤 것 등 작품의 성격이 다양하다.
- ㉡ 대부분 민요가 구전되다가 기록되어 정착된 것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가 시상 전개상 갖는 기능과 문학적 의의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솨이런가 흐노라.

- 길재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서 대상의 인품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에서 수풀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 ㉢에서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 ㉣에서 대상을 좃고자 하는 화자의 흠모하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 ㉤에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대상의 높은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서 시적 대상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단, 2행을 초과하지 말 것.)

“청산별곡” 문법 정리

작품 기법

갈래	고려 가요, 서정시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
제재	청산, 바다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특징	① ‘A-A-B-A’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② 후렴구에 ‘ㄹ’과 ‘ㅇ’ 음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냄. ③ 감정 이입, 반복, 상징, 의인,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함.

작품의 구성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청산에서의 삶을 노래함.
2연	삶의 비애와 고독	
3연	속세에 대한 미련	
4연	고독과 외로움	
5연	운명적 고독과 번뇌	바다에서의 삶을 노래함.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7연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8연	고뇌의 일시적 해소	

핵심 1 고려 가요의 특징

내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남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판받기도 함. →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등
형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으나, 대부분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이루어짐. • 대체로 3·3·2조 3음보 율격이 나타남. •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

핵심 2 후렴구의 기능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 악기의 의성어로, 흥을 돋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것
- ‘ㄹ’ 음과 ‘ㅇ’ 음의 연속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가지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줌.

핵심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청산, 바다	시적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새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
밤	시적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물	시적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가혹한 운명
강수[술]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핵심 4 작가에 따른 해석

‘유랑민’일 경우

몽골의 침략, 무신 집권기의 수탈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으로 전락한 민중의 애환을 그린 노래

‘지식인’일 경우

혼탁한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어,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지식인의 노래

‘실연한 여인’일 경우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여인의 노래

A A B A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후렴구 ▶ 청산에 대한 동경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동병상련(同病相憐)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삶의 비애와 고독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청산과 대비되는 공간)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미련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이리고 더리고'에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해 '으'를 첨가함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밤,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고독과 외로움

“청산별곡” 학습 활동 요약

1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은 8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시적 화자의 정서에 유의하여 각각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내용
1연~4연	현실에서 벗어나서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음.
5연~8연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바다로 가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에 순응하거나 혹은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함.

(2)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을 찾아보자.

시적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고 있다.

(3) 5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고, 그 상황은 어떠한지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돌(돌ㅎ)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것인지 누가 던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돌에 맞아 울고 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게 되었다면, 그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산별곡> 이 고려 가요로서 지나는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청산별곡> 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물어 작가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 3연에서 농사와 관련된 시어와 시적 상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농민)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것이다.
- 시적 화자는 2연에서 새보다 자신의 시름이 깊다고 하고 4연에서는 밤을 근심한다. 5연에서는 원망할 대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슬피 울기만 한다. 또한 7연과 8연에서 시적 화자는 해금 켜는 상황을 통해 기적을 소망하고 독한 술로 고뇌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보통의 민중이라기보다 자기 뜻을 펼 수 없어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연에서 시적 화자는 떠난 삶의 터전을 그리워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난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 작품의 작가였을 것이다.

(2) 이 작품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 3음보의 율격을 지니며 후렴구가 나타난다.
- 유사한 형식을 갖춘 연이 반복되는 연장체 형식이다.

(3) 다음은 고려 가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음별로 조사해 보자.

고려 가요는 형식과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갈래이다.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연으로만 이루어진 '단연체'도 있다. 연장체 가운데에는 12개월의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월령체(月令體)' 작품도 존재한다.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면에서는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부터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나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가운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들은 조선 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 ㉠ — <동동>
- ㉡ — <청산별곡>
- ㉢ —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3 <청산별곡> 과 같은 고려 시대 작품인 <공방전(孔方傳)> 의 일부이다. 작품의 표현 방식에 유의하며 가전(假傳)의 문학사적 의의를 함께 보자.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중략>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등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烈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격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僮)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루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 , <공방전(孔方傳)> 에서

작품 개관	
갈래	가전
성격	비유적, 우의적, 비판적, 풍자적
제재	돈(염전)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함.
특징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② 전기(傳記)적 구성을 사용하여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서술함.

<공방전>에서 '돈'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같이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우회적 수법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전(傳)은 후대의 고전 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형 자료

■ 같은 작품: 작가 미상의 <시리>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진술한 언어로 표현한 고려 가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떠나는 임이 가자마자 곧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는 모습에서 전통적 한국의 여인상을 엿볼 수 있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①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② 간결하고 소박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전통적 정서인 '한'을 표현함.

■ 시가 유사한 작품: 박두진의 <청산도>

이 작품은 청산의 생명력을 통해 청산과 같이 순수하고 건강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형상화한 시이다. 광복 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밝고 건강한 이상 세계를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과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이상향을 소망하는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해 볼 수 있다.

갈래	산문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상징적
제재	푸른 산
주제	밝고 건강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함.
특징	① '산야', '그리워라', '그리노라'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이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5연과 8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속세와 대조되는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을 뜻한다.

- ㉡ ㉡ : 후렴구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 ㉢ :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자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 ㉣ ㉣ :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사래'로 해석한다.
- ㉤ ㉤ : 낮 동안의 이런저런 상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1연의 '청산'과 4연의 '바르' : 가고 싶은 이상향
- ㉡ 2연의 '새'와 3연의 '새' : 감정 이입의 대상
- ㉢ 1연의 '멀위'와 6연의 '누므자기' : 보잘 것 없는 삶
- ㉣ 3연의 '물 아래'와 5연의 '괴리도' : 속세에 대한 미련
- ㉤ 7연의 '드로라'와 8연의 '비조라' :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광영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화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청산'과 '바르'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서 가는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띤다.
- ㉡ '널라와 시름 한 나도'는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뜻으로, 화자와 새의 대조법을 통해 시름의 깊이를 표현한다.
- ㉢ 작가를 유랑민으로 보았을 때,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며 이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떠나있음을 암시한다.
- ㉣ '마자셔 우니노라'를 통해 인간에게 닥친 운명적 비애에 화자는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 ㉤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녀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영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스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노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 별곡>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 대해 잘못된 분석한 학생은?

- ㉠ 서준 :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은 이상적인 공간으로도, 도피처로도 인식될 수도 있어.
- ㉡ 준열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이 된 농민으로 본다면 ㉢은 화자가 속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의미할 거야.
- ㉢ 경수 : ㉢은 ㉤과 대비되는 시간으로, 화자가 현재와 같은 고독한 상황에 처하기 전 행복했던 시간을 의미해.
- ㉣ 우빈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화자는 ㉤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겠군.
- ㉤ 동휘 : ㉢을 '진짜 사슴'으로 본다면 화자는 ㉣이 상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겠지.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민호가 <청산별곡>에 대하여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한 후 작성한 발표 대본의 일부분이다. 민호의 대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에 속하는 작품으로, ㉠고려 시대에 창작되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 국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형식적 특징을 <청산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살어리 /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에 / 살어리랏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4음보 율격, ㉢'알리알리 알랑성'과 같은 후렴구, ㉣연이 나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연체 등이 그것입니다. 고려 가요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 <청산별곡>은 ㉤가혹한 현실에서 오는 비애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보기 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어를 <보기 2>와 윗글에서 찾아 적고, 각 시어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단,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보기 1>
 문학 작품에 동일한 시어가 사용되더라도 시어가 사용된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변화 등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다르다. 또한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성이 강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나 정서의 연상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보기 2>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광부의 아내, 「公無渡河歌(공무도하가)」

“시조 읽기” 분석 방법

시조 ㉓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람>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람 건듯 불고 간 덕 없다 ▶ 봄바람이 산의 눈을 녹이고 사라짐.
 절음(絶音)을 비유함. 문득 잠깐 ▶ 봄바람을 밀러 머리 위에 붙게 하고 싶음.
 잠깐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회 ▶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음.
 귀 밧터 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호노라 ▶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음.
 ‘백발’을 비유함.

작품 기법

간체	평시조
성격	낙천적, 달관적, 영탄적
제지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서리(백발)
주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나타남.

작품의 구성

초장	봄바람이 산의 눈을 녹이고 사라짐.
중장	봄바람을 밀러 머리 위에 붙게 하고 싶음.
종장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음.

시어의 대비

춘산	↔	눈, 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이미지 • 눈이 녹고 새순이 돌아난 산 • ‘절음’을 상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이미지 • 귀 밑의 흰머리 • ‘늙음’을 상징함.

시조 ㉔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 수양산(수양 대군)을 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함.
 중의적 표현 ① 풍곡의 수양산 ② 수양 대군(세조) ▶ 수양산(수양 대군)을 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함.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 것가’ ▶ 설악산 ▶ 백이·숙제가 고사리로 연명한 것을 비판함.
 중의적 표현 ① 고사리를 캐서 먹음 ② 수양 대군의 녹을 먹음 ▶ 백이·숙제가 고사리로 연명한 것을 비판함.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귀 님 자해 낫드니 ▶ 백이·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보잘것없는 음식 중의적 표현 ① 주나라 무왕 ② 수양 대군

작품 기법

간체	평시조
성격	절의적, 비판적, 풍자적
제지	백이와 숙제의 고사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결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
특징	① 중의적,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②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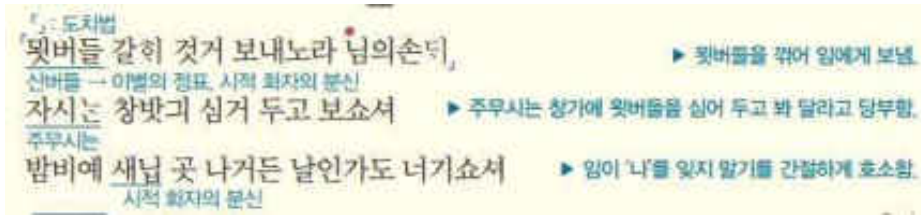
작품의 구성

초장	수양산(수양 대군)을 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함.
중장	백이·숙제가 고사리로 연명한 일에 대해 비판함.
종장	백이·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시조 ㉔ - 화자의 상황과 태도

백이, 숙제	↔	시적 화자
은나라를 섬기면서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서 먹으며 목숨을 연명함.		굳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의를 지키려고 함.
↓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함.		

시조 圖 <뫓버들 갈혀 짓거>



작품 기관

간체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제재	뫓버들,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① 자연물을 매개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②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의 구성

초장	뫓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냄.
중장	주무시는 창가에 뫓버들을 심어 두고 보아 달라고 당부함.
종장	임이 '나'를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호소함.

시어의 상징적 의미



- 이별의 정표
-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마음
- 시적 화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는 매개체

“뫓버들 새넝” 막춤 할양 문제

1 시조 세 편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시조 [1]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정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시적 화자는 봄바람이 불어 산에 눈이 녹는 것처럼 자신의 백발도 눈처럼 사라지길 바라며 늙음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2) 다음은 시조 [2]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 고사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 작가: 단종 복위에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
- 제재: 백이숙제의 고사.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먹고 연명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음. 절의(節義)를 대표하는 인물.

작가는 절의(節義)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이와 숙제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고사를 사용하였다.

(3) 시조 [3]에서 시적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뫓버들(새넝)

2 시조의 문학사적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세 작품에서 형식상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 보자.

- 3장 6구의 형태이다.
-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 종장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다.

(2) 시조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세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 보자.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그 이유는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연시조나 사설시조처럼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었다. 시조가 다른 갈래보다 오랜 생명력을 지니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갈래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조 1과 2에서는 사대부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나 신념을 말하고 있고 시조 3에서는 기생인 작가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시조 1은 고려 후기 작품으로 시조의 발생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시조 1과 2는 시조가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음을 드러내고, 시조 3은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시조를 통해 여러 정서를 표현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세 작품은 시조의 갈래상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다음은 현대 시조 <애기메꽃>이다. 한국 문학에서 시조 김려의 가사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한때 세상은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날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들길에
 쭉그려 얹은 분홍치마 계집애

- 홍성란, <애기메꽃>

애기메꽃 저지대에 비교적 흔하게 자라는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1) 이 작품을 시조 [1] ~ [3]과 비교할 때, 형식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장'이 '연'으로 바뀌었으며, 평시조의 기본 형식인 3장 6구는 유지하되 1연과 3연은 2행으로, 2연은 1행으로 제시하여 변형을 시도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산(春山)에 ㉡눈 노긴 ㉢브람 건 듯 불고 간 디 없다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희
 ㉤귀 밋뒸 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흐노라
 - 우탁

(나)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닛드니
 - 성삼문

(다) ㉠뫼벼들 갈희 것거 보내노라 ㉡뉘의 손디
 자시는 창밭기 심거 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넛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 홍랑

(라) 한때 세상은 /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 날 위해 돌
 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 들길에 / 쪼그려 앉은 분홍
 치마 계집애
 -홍성란 <애기매꽃>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 (가)에서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뺏드르며,
 벼 빈 그르헤 계는 어이 누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님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無心(무심)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 가마귀 검다 흐고 白鷺(백로) |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거물손 너 썸인가 흐노라.
- ㉣ 무음아 너는 어이 미양에 저멋는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냐.
 아마도 너 좃녀 돈니다가 늙 우일가 흐노라.
- ㉤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畝(괵)이 눈물계워 흐노라.

동탄고등학교 (경기)

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와 (나)의 종장 첫 음보는 둘째 음보보다 길다.
- ㉡ (가)는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 (나)는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가)와 달리 말의 차례를 뒤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가)와 (나)는 고사(古事)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와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를 매개로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를 통해 화자는 성찰적 자세로 삶을 돌아보고 있다.
- ㉢ ㉡를 통해 화자는 잃은 것을 되찾고 싶어하고 있다.
- ㉣ ㉡를 비판하여 화자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 ㉠와 ㉡를 통해 인생에 대한 여유와 달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가) ~ (다)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의 ㉠은 ㉡을 녹인 후 남은 잔여물을 의미한다.
- ㉡ (나)는 ㉢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 (나)는 ㉣에게, (다)는 ㉤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 (가)의 ㉠과 (나)의 ㉡은 모두 화자에게 시적인 흥취를 불러 일으키는 자연 경관에 해당한다.
- ㉤ (가)의 ㉢과 (다)의 ㉣은 모두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가) ~ (다)와 (라) 사이의 형식적 차이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람 건듯 불고 간 디 없다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희
 귀 밋터 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흐노라
 - 우탁 -

(나)
 흰 손에 막디 잡고 또 흰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디로 치러터니
 백발(白髮)이 제 묻져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 우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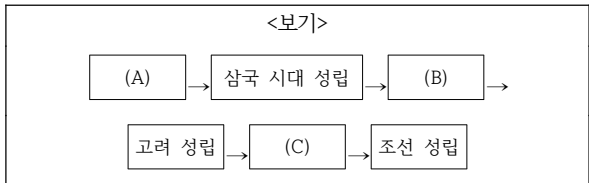
(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 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짜해 낫드니
 - 성삼문 -

(라)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저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을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라.
 - 성삼문 -

(마)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툰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 원천석 -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연표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흐름을 설명할 때, (A) ~ (C)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A) : 한국 문학에서는 천지창조와 관련된 신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B) : 한자가 전래되어 서민 계층도 한문 문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 ㉢ (B) : 신라의 육두품(六頭品)은 불교를 수용하고 보편성을 중시하는 문학을 추구하였다.
- ㉣ (C) : 한시가 쇠퇴하고 지배층은 주로 경기체가를 향유하였다.

㉤ (C) :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기점으로 소설 갈래가 확립되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와 관조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 ㉡ (나) :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 ㉢ (다) :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와 '이제'를 대비하고 있다.
- ㉣ (라) : 자연물의 이미지를 활용해 사대부의 유교적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 ㉤ (마) : 대나무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8. (가)~(마)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늙음을 막으려하는 인간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다)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지조를 부각하고 있다.
- ㉣ (라)는 절개를 지키다 죽은 후의 화자의 모습을 가정적으로 표현하여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 (마)는 속세와 자연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에 은거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사미인곡” 문역 정리

[서사]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임(臨)인회
 호심 연분(緣分)이며 하느 모를 일러인가
하늘도 알 리한 운명적인 만남일
 나 **후나** 점어 있고 **님 후나** 날 괴시니
오지 ; 임과 이별하기 전의 심정
 이 마음 이 사랑 전줄 더 노어 없다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되 **후니** 네자 하였더니
물지의 소망
 늙거야 무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노고,
권문외 ; 임과 이별한 현재의 상황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년(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 후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물 언디 삼년(三年)일쇠
임과 헤어진 후 삼 년이 지난
연지분(緣紙分) 잊니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이: 화자가 여생임을 드러내는 소재
 마음의 직진 삶을 **뉘뉘(뉘뉘)**이 바히 이서
급언이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짓는 것이 ; 물어지는 것이
 인성(人生)은 유후(有願)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르고야
염날(炎日)이 재로 아라 가는 듯 고퍼 오니
계절의 바뀜 세월의 흐름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차
본사에 의해 관한 내용이 제시됨

이 몸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현량생 연분이며 하느 모를 일러인가.
 나 허나 점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이 사랑 전줄 더 전혀 없다.
▶ 서사 1 임과의 인연
 평생에 임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엇그제 임을 뵈서 광한년에 올랐는데
 그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쇠
 연지분 있다마는 누굴 위하여 고품게 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한참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오 흐르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 서사 2 임에 대한 그리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른구나.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든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많기도 많구나.
▶ 서사 3 세월의 무상함

[본사] 동풍(東風)이 건들 부려 **적설(積雪)**을 헤더 내니
계절의 바뀜 동풍이 내리 ; 쌓여 오오는 눈
 창(窓)밖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꺾어세라
 그득 냉담(冷澹)혼디 **암향(暗香)**은 무스 일고
살맛없고 차가움 ; 그득한 향기임에 대한 추상성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벼마**의 뿔치니
임과
 늦기는 듯 번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흐느끼는 듯
 며 **미화(梅花)** 것거 내어 **닐** 거신 디 보내오저
시작 화자의 문신,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솟 디고 새님 나니 **늑음(猗陰)**이 살렸느디
계절의 바뀜 동풍이 내리
 나워(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뵈어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그득 시름 한디 남은 엇디 기듯던고
 원앙금(鴛鴦金) 버혀 노고 **오색전(五色綵)** 둘러 내어
원앙을 수놓은 버터 ; 오색실
금자취(金釵) 견화(緞花)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재에서 ;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수품(手品)은 **카니와** 제도(制度)도 그준시고
가려지던(구름을)
 산호슈(珊瑚鬪) 지게 우회 **백옥환(白玉環)**의 다마 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거신 디 바라보니
산인(山人)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흠시고
화자와 임 사이의 정어물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하 뉘라서 추자갈고
 니겨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동풍이 살들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꺾어있구나.
 그득 냉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고
 황혼에 달이 떠러와 벼갯마래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번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이 너를 보고 아꼈다 여기실까
▶ 본사 1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애)
 꽃 지고 새님 나니 늑음이 살렸는데
 비단 휘장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부용을 걸어 놓고, 공작 범종을 둘러 두니
 가락이나 시름 많은데 남은 여찌 같던고,
 원앙금 버어 놓고 오색실을 둘러 내어
 금자취 꺾어서 임의 옷을 지어 내니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환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가겨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본사 2 옷을 지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애)

하룻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려 별 제
계절의 배경을 나타냄(가을)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님(水晶簾) 거든마리
높은 누각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비니
일(일출)
 남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쬐워 내어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즉 임금이 개인 궁궐
 누(樓) 우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어
한 황을 세우는 백성 즉 화자가 있는 곳
 심산공곡(深山窮谷) 점나그티 밉고쇼서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비설이 혼 빗친 제
하늘과 땅은 세간(상기가) 꼭 막힘
 사물은 막니와 늙새도 굶쳐 있다

• **쇼상남반**(湘南南畔)도 치오미 어려커든

• **옥누고처**(玉樓高處)야 더욱 닐너 모습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남 거신 더 쏘이고져
일몰한 봄날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즉
 모침(茅簷) 비천 험돌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비천한 봄날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즉
홍상(紅裳)을 니피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 **일모슈늬**(日暮簷竹)의 헝가림도 하도 할샤

꿈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다른 취슈야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 **청등**(靑燈) 거른 것빅 년공후(銀蠟燭)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툇 밧고 비겨시니

• **양금**(養金)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하룻밤 서리 가운데 기러기 울어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림을 걸으니

동산에 달 오르고 북극에 별이 비니

일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맑은 달빛을 쬐워내어 봉황루에 부치고자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취어

심산공곡을 대낮같이 만드소서.

▶ **본사 3** 임의 정성을 비리는 마음(가을)
 천지가 얼어 붙어 백설이 한빛일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재도 끊어졌다

소상강 남쪽도 추위가 이할거늘

옥루 높은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리.

봄벌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자

초가 처마에 비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건어

저물녘 대나무에 기대어 서니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금방 지고 긴 밤을 곱곳이 있어

청등 걸어 둔 곁에 차개로 장식한 공후 놓아 두고

꿈에나임을 보려 툇 밧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양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셤겨.

▶ **본사 4**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을 보내는 외로움(가을)

경사 **하루도 열두 재** **흔 돌도 셤흔 날**

화자의 시름의 깊이를 강조함
 저근덧 생각 마라이 시름 닳자 흐니

마음의 밍쳐 이셔 골슈(骨髓)의 세터시니

• **편작**(偏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엷디흐리
벗속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쇠어디어 **범나**의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더 **족족** 안니다가
희자의 분신

항 **므틴** **늘**애로 님의 오쇼 올므리라

임에 대한 충성심, 사랑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호**노라
일편단심

하루도 열두 때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닳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뱃속까지 사무셨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아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항 문헌 날개로 임의 옷에 올므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좃으려 호노라.

▶ **경사** 임을 향한 변함 없는 마음

작품 기관

감체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성격	서정적, 연모적
제지	임(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주제	늪음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연군의 정을 절실하게 표현함. ② 뛰어난 우리말 구사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 줌. ③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작품의 구성

서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세월의 무상함	
본사	불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어물	옷을 지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가을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겨울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을 보내는 외로움
결사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핵심 1 가사의 특징

형식	• 3·4 또는 4·4 연속체로 4음보를 기본으로 함. • 대체로 '서사-본사-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있음. • 마지막 4음보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의 음수율을 지닌 정격 가사와,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격 가사가 있음.
내용	조선 초기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나 연군지정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작가층이 확대되어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아짐.

핵심 2 작품의 사상적 배경

유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충(忠)'을 강조함.
불교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임을 만난다는 윤회 사상이 드러남.
도교	천상에서 버림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여인을 화자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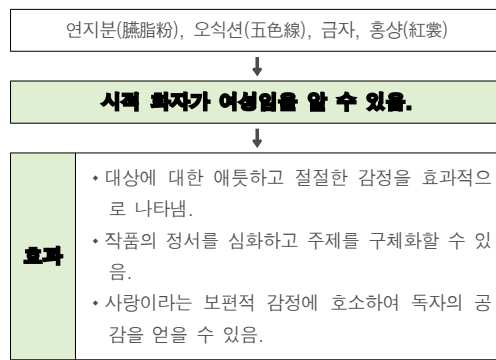
핵심 3 작품의 주제



핵심 4 계절별 주요 소재의 의미



핵심 5 여성 화자 설정의 효과



핵심 6 작품의 의의 및 가치

- <속미인곡> 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루는 작품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함.
- 고려 가요 <정과정곡> 의 전통을 잇는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에 해당함.
-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가시리>, <동동> 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음.

“사미인곡” 학습 활동 문제

1 <사미인곡> 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서사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고통
본사	불 매화를 보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고 싶은 마음
	어름 옷을 지어 보내는 외로운 심정과 임에 대한 정성
	가을 달과 북극성을 보며 임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램.
	겨울 임 계신 곳에 따뜻한 춘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
결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다짐

(2) 이 작품의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 보자.

- 우리 문학에 여성적 어조로 이별이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관습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성 화자를 설정한 것은 이별로 인한 시적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보다 절실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에 빗대어 노래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고 있다.

(3)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온 뒤에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 구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보자.

남의게 보내오려 님 계신 뒤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슴도 머슴시고	시적 화자는 ‘님 계신 곳’이 산과 구름에 가로막혀 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산’과 ‘구름’이 ‘임’과 시적 화자 사이의 장애물임을 고려할 때 작가는 간신에 둘러싸여 있는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
누(誰) 우러 거머 두고 팔방(八方)의 다 비껴어 삼산공곡(深山窮谷) 결낫기 텅그소서	빛은 곧 임금의 선정이다. 임금이 깊은 산이나 계곡까지 다 비출 수 있을 만큼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2 <사미인곡> 이 가사로서 지나는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사미인곡>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해 보자.

가사는 4음보 연속체의 율문으로, 길이에겐 제한이 없는 시가 갈래이다. 가사는 형식에 따라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비슷한 형식을 지닌 ‘정격 가사’와 그렇지 않은 ‘변격 가사’로 나누기도 한다.

- <사미인곡>은 4음보의 연속체 형식을 취한다.
- <사미인곡>의 마지막 행은 첫 음보가 3음절이며,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다는 시조의 형식과 같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격 가사에 해당한다.

4-(2) 사미인곡

(2) 다음은 정철의 가사를 비평한 글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 문학사에서 <사미인곡>의 가치를 말해 보자.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 내어 쓴 것이니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걷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비록 천하고 속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세 편의 노래(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는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함은 없다.

- 김만중, 《서포만필》에서

<사미인곡>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 문학의 대표 작품이다. 주로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하던 당시에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유려하게 표현한 <사미인곡>은 문학 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3 <사미인곡>은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우리 문학에서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찾아보자.

고려 가요 <정과정곡>: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문인 정서가 귀양지인 동래에서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 소식이 없자 지어 부른 작품이다. <사미인곡>과 같이 여성 화자를 활용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이 나타난다.

작가의 다른 작품: 정철의 <관동별곡>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고사, 풍속, 선경에 대한 포부, 임금에 대한 연군 등을 읊은 가사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언어적 기교가 뛰어나며 대표적인 양반 가사이자 기행 가사로 평가받고 있다.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정격 가사
성격	서정적, 묘사적, 충의적
제재	관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특징	①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영탄, 대구, 은유, 격유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③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주제가 유사한 작품: 정서의 <정과정곡>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 역모 죄로 귀양을 간 정서가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한 임금에게서 소식이 없자 자신의 억울함과 절백을 호소하며 부른 노래이다. 고려 가요 중 작가들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며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사미인곡>과 비교 감상하면서 우리나라 충신연주지사 문학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애상적, 고백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자신의 절백 호소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특징	① 형식 면에서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음. ② 자연물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입하여 표현하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노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칭(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논고야
 염냉(炎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타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밭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어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쫓 디고 새납 나니 녹음(綠陰)이 싹렸느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衾)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쿠니와 제도(制度)도 7 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흠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흘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감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마리

[A]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나7터 밍그쇼셔.

<중략>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츼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 -

동탄고등학교 (경기)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임과 헤어진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 ㉡ 화자와 임은 과거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 ㉢ 화자는 봄에 임의 옷을 지어 매화를 꺾어 함께 보낸다.
- ㉣ 화자는 죽어 범나빅가 되어서라도 임을 찾아가고 싶어한다.
- ㉤ 화자는 과거에 광한전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하계에서 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 ㉡를 참고하여 윗글의 [A]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정철이 1585년(선조 18년)에 지은 가사이다. 당시 정철은 조정의 당파 싸움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동인 세력이 합세하여 서인 세력을 공격하자, 서인 세력의 대표였던 정철은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 내려가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1) [A]에 해당하는 계절과 이 계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 2개를 (다)에서 찾아 쓰시오.
- (2) ㉡와 관련지어 [A]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1)의 답안 작성 시, 시어는 2개까지만 채점함.
- (2)의 답안 작성 시, '심산궁곡', '점나7터'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광영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1) 윗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임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 (2) 윗글의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사]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칭 緣연分
 분이며 하늘 모를 일어런가. 나 하나 점어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무음 이 스랑 견줄디 노여 업다. 평생生심애 願원
 호요디 헌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
 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廣광寒한殿殿의 울났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下하界계에 노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엿디
 三삼年년이라. 燕연脂지粉분 있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무음의 미친 실음 蠱蠱蠱蠱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인生심은 有有限한헌디 시름도 그지 업
 다. 無무心심한 歲세月월은 물 흐르듯 호논고야. 炎염涼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
 도 할샤.
 [본사 1]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雪을 헤터 내니 窓창
 빛기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긋득 冷냉淡담한디
 暗암香향은 므스 일고. 黃황昏昏의 돌이 조차 벼마터 빗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본사 2] 꽃 디고 새넌 나니 綠綠陰음이 쏠렸는디, 羅羅韋
 위 寂寂寞寞하고 繡繡幕幕이 뷔여 있다. 芙부蓉蓉을 거더 노
 코 孔공雀작을 돌려 두니, 긋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
 고. 鴛鴦鴦錦錦 버혀 노코 五오色色線線선 플터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手品品은 可可나 制제도도
 7줄시고. 珊珊瑚호樹樹 지게 우히 白백玉玉函函함의 다마 두
 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山山인가 구름인
 가 머호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萬리리 길을 뉘라셔 차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본사 3]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危危樓樓에
 혼자 올라 水水晶정簾簾 거든말이, 東東山山의 돌이 나고 北
 북極극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清
 청光光을 쥐여 내여 鳳鳳凰凰樓樓의 붓티고져. 樓樓 우히 거
 러 두고 八팔荒荒의 다 비취여, 深深山山 穹穹谷谷 점나7터
 밍그쇼셔.
 [본사 4] 乾乾坤坤이 폐식하야 白백雪雪이 흰 빗친 제, 사
 림은 可可나 놀새도 긋쳐 있다. 瀟灑灑상 南남畔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玉樓樓누고處處야 더욱 닐너 므스하리. 陽陽春春
 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쓰이고져. 茅모簷檐 비취 히를 玉
 옥樓樓의 올리고져. 紅紅裳裳을 니미치고 翠翠袖袖를 半반만
 거더. 日일暮모 脩修竹竹의 행가림도 하도 할샤. 다룬 히 수
 이 디여 긴밤을 고초 안자, 靑靑燈燈 거른 것티 鈿鈿鞦鞦候
 후 노하 두고, 擘擘나 님을 보려 톱 밧고 비겨시니, 鸞鸞衾衾
 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결사] ㉠호르도 열두 새 호 돌도 셤흔 날, 저근덧 심각 마
 라 이 시름 낮자 하니, 무음의 미쳐 이셔 脣脣髓髓의 썩터시
 니, 扁扁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호리. 여와 내 병이
 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곶
 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
 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

광주고등학교 (광주)

7. ㉠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상황 및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
 은?

- ㉠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희를 브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
 가음이 이리하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물내 도하 호노라.
- ㉡ 삼동(三冬)에 비옷 닙고 암혈(巖穴)에 눈비 마자/ 구름 낀
 벗누도 썩 적이 업건마는/ 서산(西山)에 해지다 하니 눈물
 겨워 호노라.
- ㉢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디 업다/ 잠간 비
 러다가 불니고져 마리 우희/ 귀 밧되 히무근 서리를 노겨
 불까 호노라
- ㉣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
 (依舊)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
 煙月)이 꿈이런가 호노라.
- ㉤ 철령(鐵嶺) 높은 봉(峰)을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
 (孤臣冤淚)를 비 삼아 띄어다가/ 임 계신 구중심처(九重深
 處)에 뿌려 본들 어떠리.

광주고등학교 (광주)

8.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그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을 고르면? (정답 2개)

- ㉠ 높은 누각을 촬영장소로 섭외하되,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밤을 촬영시간으로 설정한다.
- ㉡ 상상 장면으로 삽입하기 위해, 예전에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던 임(임금)의 모습을 촬영한다.
- ㉢ 홀로 있는 방에서 공후를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때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효과음으로 준비한다.
- ㉣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모습을 화면에 담
 되, 여인 역할을 하는 배우가 대나무에 기대어 힘없는 표정
 을 짓도록 연기지도를 한다.
-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장면을 모두 촬
 영하여 준비하되, 가을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새의 울음소
 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9.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본사
 2>에서 찾아 적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보기>

뫓번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넌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어이 못 오던가” 품격 정리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도 못 오던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너'(임)에게 질문함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城) 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그리움의 대상임)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궤(櫃)를 노코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
 (結縛)하여 너코 쌍리목 걸쇠에 금(金)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관디 네 어이
 그리 못 오던가. 1: 과장법
 혼히도 열두 돌이오 혼들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라
 오지 않는 너(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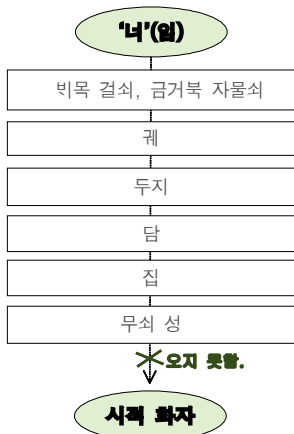
작품 기법

감제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제지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특징	①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냄. ②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그려 냄.

작품의 구성

초장	'너'(임)가 못 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함.
중장	'너'(임)가 못 오는 이유에 대해 시적 화자가 나름대로 추측함.
종장	오지 않는 '너'(임)를 원망함.

핵심 1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일이 오지 못하는 이유



핵심 2 시적 상황 및 시적 화자의 경서

시적 상황	시적 화자는 현재 오지 않는 임('너')을 기다리고 있음.
시적 화자의 경서	임('너')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핵심 3 시조의 형식상 분류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의 단형시조(單形時調)
옛시조	• 초·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의 자수(字數)가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길어지며, 종장에는 변화가 없는 중형 시조(中型時調) • '옛'이란 '빚나가다'라는 뜻이며, '옛시조'는 '평시조의 형태에서 엇나간 시조'란 뜻
사설시조	• 장시조(長時調)라고도 불리며, 조선 영·정조 이후에 서민 문학이 발흥되었을 때 중인, 가객, 부녀자, 기생, 상인 등 서민들이 주로 창작함. • 형식은 초장·중장이 짧고, 종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의 첫 구만 평시조의 형태를 지니는 것과, 3장 중에서 어느 2장이 어느 시조보다 긴 것도 있음.
연시조	• 두 수 이상의 평시조가 겹쳐 있는 시조 형식 • 연형시조(聯形時調)라 하며, 동일한 주제를 평시조 한 수만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함.

핵심 4 표현상의 특징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城) 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궤(櫃)를 노코 ~ 네 어이 그리 못 오던가'
 중장에서 '성', '담', '두지', '궤' 등의 사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반복 배치됨.
연쇄법, 반복법

“단원 삼 요민간” 막춤 탈춤 공연

1 <어이 못 오던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너’(임)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임)가 시적 화자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

(2) 중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 보자.

‘너’(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반복·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너’(임)가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종장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너’(임)가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한다.

·한편으로는 ‘너’(임)가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린다.

2 사실시조의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사실시조의 특징을 찾아보자.

시조는 3장 4음보 형식의 정형시이다.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할 때 작가 층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과 관련 있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된 사실시조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조의 미학적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벼움이나 유희, 희화화와 같은 해학적인 요소 또한 볼 수 있게 되었다.

·형식의 변화: 작품의 길이, 특히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

·미학적 성격의 변화: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해학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다.

(2)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추측해 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이 작품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소 과장되면서 해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자층은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양반층이라기보다는 중인을 포함한 서민 계층일 것이다.

3 다음은 민속극 <봉산 탈춤>의 한 부분이다. <어이 못 오던가>와 비교하면서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快子]에 복건[巾]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으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 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옥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아야,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옥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 작자 미상, <봉산 탈춤>에서

4-(3) 어이 못 오던가

갈래	전통극, 민속극, 가면극	성격	평민적, 해학적, 풍자적
제재	양반의 무지와 허세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특징	① 양반이 쓰는 한자어와 평민이 쓰는 비속어가 섞여 있음. ②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 열거, 대구, 과장 등을 통한 해학과 양반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짐.		

(1)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찾아보자.

두 작품 모두 열거, 반복, 과장 등을 통해 해학을 느끼게 한다.

(2) (1)과 같은 공통점이 생긴 까닭은 무엇인지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조선 후기에는 봉건주의적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며 평민 의식이 성장하는 등 근대적 가치관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조선 후기에 창작된 사실시조나 관객들 앞에서 연행된 <봉산 탈춤>에는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과 비판 의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갈래 가 같은 작품: 작자 미상의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 작품은 '두터비'를 회화화하여 지배층이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모습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회상을 풍자한 사실시조로, 사실시조의 한 특징인 비판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갈래	사실시조	성격	풍자적, 우의적, 해학적
제재	두꺼비, 파리, 백송골		
주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세태 풍자		
특징	① 두꺼비, 파리,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악육강식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함. ② 중심 소재의 특성을 회화화함.		

주제 가 유사한 작품: 작자 미상의 <서경별곡>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입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임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입을 따르겠다는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와 입에 대한 원망을 애꿎은 뱃사공에게 나무라는 구절 등에서 고려 가요 특유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엿볼 수 있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이별		
주제	입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① 반복법, 비유법, 설의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함. ② 정쾌한 리듬감을 더해 주는 후렴구를 사용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城)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귀(櫃)
를 노코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結縛)하여
너코 쌍비목 결쇠에 ㉤금(金)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관
디 네 어이 그리 못 오던가
훈 히도 열두 돌이오 훈 돌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흘리 업
스랴.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

(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
하여 플덕 뛰어 내닷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마정 에혈질 변하과라.
-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다)
양반 삼 형제 :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
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
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
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 정승(三政
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
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시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
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
였소.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임이 오지 못하는 사정을 헤아려 이해하고 있다.
- ㉡ 내용과 형식면에서 평시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 ㉢ 근경에서 원경으로 임이 있는 곳을 묘사하고 있다.
- ㉣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2. <보기>는 일반적인 이별시에서 보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의 ㉠~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는 시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드러난다.

- 시적 상황
 - 임과 이별하고 홀로 지냄
 -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림
-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
 - ㉠ 임을 만나러 찾아감
 - ㉡ 임에 대한 원망
 - ㉢ 임의 새로운 여인에 대한 질투
 - ㉣ 임과의 재회에의 다짐

- ㉠ ㉡
- ㉡ ㉢, ㉣
- ㉢ ㉣, ㉤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3. ㉠ ~ ㉤ 중 시어의 의미가 다른 것은?

- ㉠ ㉡
- ㉡ ㉢
- ㉢ ㉣
- ㉣ ㉤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4.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 (나)는 중장이 길어지면서 운율적 요소가 사라졌다.
- ㉡ (가), (나)는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 ㉢ (가), (다)는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면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 ㉣ (가)는 (나)와 달리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발달과 산문 정신의 확대로 등장하였다.
- ㉤ (가)는 (다)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인천고전고등학교 (인천)

5. (가) ~ (다)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미학적 성격을 쓰고, 이와 같은 미학적 성격이 나타난 까닭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십시오.

광영고등학교 (서울)

6.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열거와 과장을 통해 해학을 느끼게 한다.
- ㉡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 시선의 이동에 따른 감흥(感興)을 노래하고 있다.
- ㉣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평시조는 3장 6구 4음보 형식의 정형시이다.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할 때 작가층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 즉 사대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신세계를 담아내기 적합한 간결하고 단아한 형식과 관련 있다. 내용은 주로 유교적 충의(忠義) 사상이나 관념화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을 주로 담아내었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된 사실시조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조의 미학적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벼움이나 유희, 희화화와 같은 해학, 풍자 또한 볼 수 있게 되었다. 평민들의 현실 감각과 진솔한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였으며, 기성도덕에 도전하거나 생생한 현실 고발을 통해 기존 질서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城)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귀(櫃)를 노코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結縛)하여 너코 쌍비목 결쇠에 금(金)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관디 네 어이 그리 못 오던다

㉢훈 히도 열두 돌이오 훈 돌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랴.

- 작자 미상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플덕 뛰어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망정 에혈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라)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恨)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흥넉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따희 낮드니.

- 성삼문

광주고등학교 (광주)

7.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용하여, 임과의 소식이 끊긴 데에서 비롯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 ㉡ :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 ㉣ : 약육강식하는 대상들의 모습을 통해 양반들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 :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대부인 작가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가)를 바탕으로 (나) ~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에는 화자의 진솔한 감정이 해학적으로 드러난다.
- ㉡ (나)와 달리, (라)는 기존의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 (다)는 '두터비', (라)는 '채미'를 통해 기성도덕에 도전하는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 ㉣ (라)와 달리, (다)는 날카로운 풍자가 드러난다.
- ㉤ (라)는 3장 6구의 간결함과 단아함을 유지하는 반면, (나)와 (다)는 장형화된 시형을 창조하고 있다.

“흥보전” 필독 명리

작품 기원

간체	판소리계 소설, 국문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
배경	• 시간: 조선 후기 • 공간: 경상, 전라 경계 지역
주제	• 표면적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이면적 주제: 몰락 양반과 신흥 부농 사이의 빈부 갈등
특징	①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잘 나타남. ②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를 잘 보여 줌. ③ 풍자와 해학 등 웃음의 미학이 잘 나타남.

작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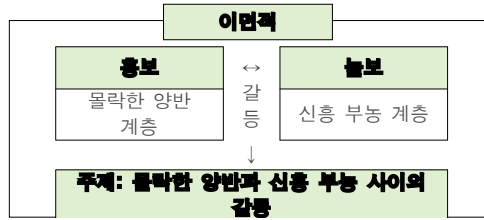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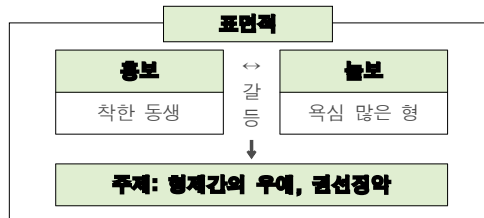
발단	욕심 많은 형 놀보가 착한 동생 흥보를 집에서 무일푼으로 쫓아냄.
전개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러 간 흥보는 형에게 박대를 당하고, 흥보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매품을 팔려 하지만 실패함.
위기	흥보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고, 이듬해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줌.
결정	박씨를 심어 수확한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흥보는 부자가 되고,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꺾어 박씨를 얻으려다 벌을 받게 됨.
결말	흥보가 망한 놀보를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삶.

※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위기~결말 부분임.

핵심 1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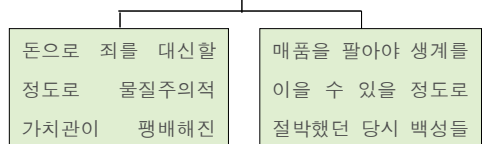
- 소설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판소리 사설을 토대로 창작되어 3·4조 내지 4·4조의 4음보 형태가 문체의 기초를 이룸.
- 등장인물들은 비범한 영웅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적인 인간임.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순수한 우리말과 생생한 느낌의 의성어, 의태어, 민중들의 속어나 방언 등이 많이 사용됨.

핵심 2 작품의 갈등과 주제



핵심 3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

- 흥보가 매품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함.
- 돈을 받고 매품을 팔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 자랑을 함.



'가난 자랑' 장면의 기능과 역할

'가난 자랑' 장면

인물들이 차례대로 등장하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랑함.

- 가난한 상황을 과장적,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
- 평민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비판함.

(4)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이 공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보전>의 주제를 분석해 보자. <홍보전>의 표면적인 주제는 중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빈부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3 다음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가사 <누항사>의 일부이다.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한기태심(旱既太甚)하여 시절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늙은 눈에 잠깐 긴 날비에
 도상무원수(道上無源水)를 반만잔 디혀 두고
 쇼 흥 적 듀마 흥고 엄삼이 흥는 말삼
 친절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의 허위허위 다라서
 구디 다든 문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은 후에
 어화 그 뉘신고 염치업산 니옵노라
 초경도 거인디 그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리흥기 구차한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해염 만하 왓삽노라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지를 시기도 다
 늦어 가는 때에
 서쪽 언덕 높은 눈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흘러가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
 소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믿고
 친절하다고 여겼던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으로 예쁨을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염치없는 저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작품 개관	
갈래	가사(정격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사실적, 전원적, 사색적
제재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
주제	가난하지만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을 추구함.
특징	① 임진왜란 이후의 혼란한 사회와 곤궁한 사대부의 삶을 보여 줌. ② 대화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 (1)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보자.
 시적 화자는 가난하여서 영성하게 하는 말만 믿고 소를 빌리러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 (2) 이 작품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해 보자.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홍보전” 읽고 생각

1. 불기를 대송방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홍보의 자식들은 매품 팔러 가는 홍보에게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사 달라고 조른다. 이를 듣고 홍보는 매를 맞게 될 자신의 불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로 아느냐고 자식들에게 말한 것이다.
2. 가난 자랑에서 김딱직이 이긴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첫 번째 사람은 삼십 일에 아홉 끼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석 달 동안 밥알조차 볼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딱직은 밥을 해 먹지 않은 지 삼 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상황이므로 가난 자랑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다.
3. ‘음식 노래’를 부르는 홍보와 이를 듣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홍보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음식 노래를 부른다. 이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정 가장 애중 자식 ~ 이내 설움 어디다 하소연할꼬.”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홍보의 노래를 듣는 아내는 처량하고 슬픈 심정임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보 이른 말이,
 “천기누설이라, 말부터 앞세우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끈 먹고.”
 홍보 아내 이른 말이,
 “먹으니 좋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홍보 이른 말이,
 “본읍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삼십 냥에 결단하고 마삿 돈 닷 냥 받아 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이른 말이,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물골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홍보 이른 말이,
 “불기의 구실이 있나니.”
 “불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A] “그렇지. 불기 구실 들어 보소. 이내 몸이 정승 되어 평교자에 앉아 불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헌 위에 앉아 불까, 사복시 관리 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 불까, 팔도 감사 하여 선화당에 앉아 불까, 각 읍 수령 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 불까, 좌수 별감 하여 향사당에 앉아 불까, 이방 호장 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 불까, 소리명창 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 불까, 풍류 호걸 되어 기생집에 앉아 불까, 서울 이름난 기생 되어 가마 안에 앉아 불까, 많은 돈 벌여 부담마에 앉아 불까, 쓸데없는 이내 불기 놀려 무엇 한 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 먹세.”
 홍보 자식들이 별 떼갈이 나왔으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豪奢)가 큼직하오.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날 오동철병(烏銅鐵瓶) 하나 사다 주오.”
 홍보 이른 말이,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귀밑머리에 차도 찰 터이웁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 터이오니 사 오기만 사 오오.”
 또 한 놈 나왔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오.”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홍보 큰아들 나왔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는데 윽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에라 심하구나, 후례아들 놈들. 아버지 그렇잖소. 나는 담비 가죽 탕평체에 모초의 한 농과, 한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 쇠 거울 둘 거울 넣어드 주오.”
 홍보 이른 말이,
 “네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높여 하는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불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로구나.”
 <중략>
 여러 날 만에 병영을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것발이로다. 도군권의 치레 보소. 산짐승 털버거지에 남일광단으로 안을 받쳐, 갓끈 고리와 밀화 귀를 맞은, 궁초로 만든 갓끈 잡아매고, 관디 협수 군복 띠를 배에 둘러 매고, ‘날랄 용(勇)’이라는 글자 떡 붙이고, 홍보 앞에 썩 나서며,
 “에라 이놈 게 앉거라.”
 ㉤홍보 속마음에,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았거늘, 홍보 들어가며,
 “인사하오.”
 “에 마오.”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홍보를 모르시오.”
 한 놈 나서며,
 “장자(長者)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홍보 가슴이 끔찍하여,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술봉 애비 모르시오. 이 십오 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또 한 놈 나왔으며,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사십육 대 호적 없이 남의 결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직이란 말 듣도 못하였소.”
 한 놈 나왔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저분 언제 왔소?”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한 놈 나왔으며,
 “나는 온 지가 십여 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 본 내 아들놈 없소.”
 홍보 이른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갑세.”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더하오?”
 “내 가난 들어 보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달는 벼룩 쪼그려 앓을 데 없고 ㉨삼순 구식 먹어 본 내 아들 없소.”
 한 놈 나왔으며,

“족히 먹고살 수는 있겠소.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 보오. 내 가난 남과 달라 이 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팔 년이로되,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짓고, 부역의 노랑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툰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드러누운 지가 석 달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김딱지가 씩 나왔으며,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소. 내 가난 들어 보오. 조그마한 한 칸 초막 발 뺨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안고 누워 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 사월 팔일 관동 다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삼 년째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둑의 아 들놈도 못 팔아 갈 것이니.”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

- 작자 미상, 「홍보전(興浦傳)」 -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다.
- ㉡ 조선 후기 시대상과 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 부분적으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이 나타난다.
- ㉣ 격식있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기품을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독자의 상상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겉으로만 남편 ‘홍보’를 걱정하고 있다.
- ㉡ ㉡ : 동생들을 꾸짖으며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
- ㉢ ㉢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 ㉣ : ‘홍보’보다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 ㉤ ㉤ : ‘솔방애비’보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여기며 슬퍼하고 있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 유사한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 ㉢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 4음보 연속체로 인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 ㉤ 판소리계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6. 뒷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기태심(旱既太甚)하야 시절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늙은 눈에 잠깐 긴 널비에
 도상무원수(道上無源水)를 반만잔 디혀 두고
 쇼 흥 적 듀마 흥고 엄섬이 흥는 말삼
 친절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흔의 허위허위 다라가
 구디 다든 문 밧기 어둑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은 후에
 여화 그 뉘신고 염치업산 니옴노라
 초경도 거원디 그 옛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흥기 구차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 뒷글은 <보기>와 달리, 대화체를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을 보여준다.
- ㉡ 뒷글은 <보기>와 달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부패한 사회상이 드러난다.
- ㉢ 뒷글과 달리, <보기>는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 뒷글과 달리, <보기>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 ㉤ 뒷글과 <보기>는 모두 경제적으로 가난한 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7.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린아이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의미이다.
- ② ㉡ : 매를 맞게 될 자신의 불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로 아느냐며 탄식하는 말이다.
- ③ ㉢ : 먼저 매품을 팔기 위해 자신이 일찍 왔다는 것을 과시하는 말이다.
- ④ ㉣ :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다.
- ⑤ ㉤ : 이름 모를 귀신의 아들만 자기 대신 매품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8. 윗글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으로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윗글의 주제를 두 가지로 서술하시오.

<조건>

- 중세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주제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두 주제가 어느 가치관에 해당하는지 문장 안에 드러낼 것.
- 각 문장은 '-다'로 끝나는 완결된 형태로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보 마삿 돈 닷 냥 받아 차고, '얼씨구, 즐겁도다.' 제집으로 들어가며,
 “애기 어멈, 게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삼십 냥이 들어가네.”
 홍보 아내 이른 말이,
 “그 돈은 웬 돈이며 삼십 냥은 웬 돈이요?”
 홍보 이른 말이,
 “천기누설이라. 말부터 앞세우면 일이 이뤄질 수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근 먹고.”
 홍보 아내 이른 말이,
 “먹으니 좋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홍보 이른 말이,

“본읍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삼십 냥에 결단하고 마삿 돈 닷 냥 받아 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이른 말이,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몰골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홍보 이른 말이,

“불기의 구실이 있나니.”

“불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그렇지. 불기 구실 들어 보소. 이내 몸이 정승 되어 평교자에 앉아 불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헌 위에 앉아 불까, 사복시 관리 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 불까, 팔도 감사 하여 선화당에 앉아 불까, 각 읍 수령 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 불까, 좌수 별감하여 향사당에 앉아 불까, 이방 호장 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 불까, 소리명창 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 불까, 풍류 호걸 되어 기생집에 앉아 불까, 서울 이름난 기생 되어 가마 안에 앉아 불까, 많은 돈 벌어 부담마에 앉아 불까, 쓸데없는 이내 불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먹세.”

홍보 자식들이 벌 떼같이 나왔으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오. 그래 아버지 병영가신다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오.”

홍보 이른 말이,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귀밑머리에 차도 찰 터이웁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 터이오니 사 오기만 사 오오.”

또 한 놈 나왔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오.”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홍보 병영 내려갈 제 탄식하고 내려간다.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았거늘, 홍보 들어가며,

“인사하오.” / “에 마오.” /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홍보를 모르시오.”

한 놈 나서며, /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홍보 가슴이 꿈쩍하여, /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푼촌서 사는 솔봉 애비 모르시오. 이십오 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또 한 놈 나왔으며,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사십육 대 호적 없이 남의 결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직이란 말 듣도 못하였소.”

한 놈 나왔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4-(1) 주몽신화

1.① 2.① 3. (1) <주몽신화>에서는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린 것에서 나타나고,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황판서의 첩인 초란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탁월한 능력 ㉡위대한 업적 4. ② 5.④ 6.④ 7.(1) 전기성 (2) 처음~낳았다, 목구멍을~날아갔다. 8.⑤ 9.① 10.유화와 웅녀 모두 고난을 극복하였으며, 건국 시조를 낳았고,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11.⑤ 12.(1) 주몽 신화의 구성방식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다. (2) 천신과 수신의 결합 13. ③ 14.⑤ 15.④ 16.② 17.⑤ 18.④ 19.④ 20.② 21.③ 22.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지만, 단군은 일반적 출생의 과정을 겪었다. 23.④ 24.⑤ 25.④ 26.② 27.(나)의 낙구는 '아아' 감탄사로 시작하여 화자의 감정을 집약하고 시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어 (다)에서도 종장의 첫음절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28.② 29.④ 30.④

4-(1) 공무도하기

1.④ 2.⑤ 3.① 4.㉠은 사랑, ㉡은 이별, ㉢은 죽음에 해당한다. 5.③ 6.③ 7.④ 8.② 9.④ 10.③ 11.④ 12.① 13.③ 14.⑤ 15.⑤ 16.③ 17.① 18.② 19.이별의 슬픔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0.(가)는 임과 죽음으로 인해 이별했으나, (다)는 시적 대상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별했다. 21.① 22.⑤ 23. ④ 24.⑤ 25.③ 26.① 27.③ 28.⑤ 29.④ 30.이별, 슬픔, 단절, 사랑, 죽음 등을 뜻한다.

4-(2) 찬기파랑가

1.⑤ 2.이 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는 모두 감탄사로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3.③ 4.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5.⑤ 6.① 7.② 8.<보기>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의 '아아'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가 <보기>의 종장 '어즈버'와 같은 3음절로 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 '달'은 모두가 우러르는 고귀함을 뜻한다. '넋물'은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낸다. '조약돌'은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뜻한다. '잔나무'는 기파랑의 높은 지조를 뜻한다. 10.④ 11.① 12.

⑤ 13.② 14.③ 15.(1) 물서리'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낸다. '자식가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드러낸다. (2) 시상을 고양하고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16.② 17.1) 아아, 어즈버 2) 시상을 집약한다. 18.⑤ 19.⑤ 20.⑤ 21.② 22.⑤ 23.④ 24.② 25. ② 26.④ 27.(가)아아 (다)어즈버 28.② 29.④

4-(2) 청산별곡

1.시적 화자는 5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8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2.⑤ 3.① 4.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비애를 뜻한다. 5.② 6.③ 7.② 8.윗글의 '물'은 속세를, <보기2>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을 뜻한다. 9.④ 10.상업보다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11.⑤ 12.⑤ 13.(1)같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2)공방의 이름을 통해 표리부동한 성격이 드러난다. 14.② 15.④ 16.② 17.⑤ 18.(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는 임을 붙잡으면 임께서 서운함을 느낄까봐 붙잡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9.㉠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20.④ 21.(가)는 분연체(분절체)이고 후렴구가 있지만, (나)는 단연이고 후렴구가 없다. 22.② 23.④ 24.③ 25.④ 26.① 27.② 28.후렴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29.㉡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 30.④ 31.③

4-(2) 경설

1.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자. 2.③ 3.⑤ 4.② 5.① 6.④ 7.⑤ 8.거사의 말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9.⑤ 10.④ 11.① 12.④ 13.⑤ 14. ② 15.④ 16.② 17.⑤ 18.③ 19.⑤ 20.④ 21.작가는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풍자하고 있다.

4-(2) 시조 세 편

1.④ 2.② 3.④ 4.② 5.(가)~(다)의 '장'이 (라)에서는 '연'으로 바뀌었다, (가)~(다)는 1'장'이 1행으로 되어 있지만, (라)는 1연이 1행인 것도 있고, 2행인 것도

있다. 6.③ 7.② 8.⑤ 9.③ 10.⑤ 11.① 12.④ 13.① 14.⑤ 15.② 16.② 17.③ 18.⑤ 19.③ 20.② 21.② 22.④ 23.④ 24.② 25.⑤ 26.① 27.③ 28.④ 29.사육신 중의 한 명인 작가는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이와 숙제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고사를 사용하였다. 30.② 31.①

4-(2) 사미인곡

1.② 2.⑤ 3.④ 4.③ 5.(1) 가을, '서리', '기러기' (2) 힘들게 사는 백성이나 화자가 있는 곳까지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2)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에 빚대어 노래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7.⑤ 8.②③ 9.'님의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10.④ 11.⑤ 12.② 13.④ 14.㉠ 동풍 ㉡ 녹음 15.③ 16.① 17.② 18.③ 19.④ 20.③ 21.⑤ 22.② 23.④ 24.⑤ 25.③ 26.⑤ 27.(1)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2)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3)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낸다. 28.④ 29.④ 30.⑤ 31.④ 32.'연지분'을 통해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4-(3) 어이 못 오던가

1.④ 2.② 3.④ 4.② 5. 세 작품 모두 골계미(해학미)가 나타난다. 조선 후기 봉건주의적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평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과 비판 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6.① 7.⑤ 8.③ 9.④ 10.① 11.③ 12.⑤ 13.① 14.④ 15.⑤ 16.④ 17.② 18.② 19.③ 20.① 21.⑤ 22.② 23.ㄱ-가뭄, ㄴ-언덕, ㄷ-지나가는, ㄹ-길, ㄹ-물, ㅂ-허둥지둥, ㅅ-에헬, ㅇ-오래, ㅈ-소, ㅊ-걱정 24.⑤ 25.⑤ 26.④ 27.① 28.③ 29.②

4-(3) 흥보전

1.② 2.④ 3.④ 4.③ 5.③ 6.② 7.⑤ 8.중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이다.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주제는 '빈부의 갈등'이다. 9.① 10.② 11.③ 12.서술자가 내용에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을 드러낸다. 13.⑤ 14.⑤ 15.(예시) 부모 덕을 보아 건물주가 되어 안마의자에 앉아 볼까 16.② 17.③ 18.②③ 19.㉠새, ㉡짐승, ㉢강산, ㉣무궁화 세계

20.② 21.④ 22.⑤ 23.① 24.③ 25.③ 26.② 27.① 28.'들어보소'와 같이 청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에 앉아볼까'와 같이 유사한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한다 29.② 30.③ 31.⑤ 32.가난한 상황을 과장적,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극심한 가난을 겪는 평민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한다.

4-(3) 절명시

1.⑤ 2.③ 3.③ 4.④ 5.나는 위로는 하늘의 뿔뿔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6.⑤

4-(4) 초혼

1.② 2.(1) 장례의식인 초혼의 행위가 나타난다. 망부석 설화가 반영되어 있다,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2) 3음보의 전통적 민요조 율격이 쓰였다. 3.② 4.⑤ 5.㉠ 삶과 죽음(임과 화자) ㉡ 망부석 6.④ 7.③ 8.① 9.③ 10.③ 11.⑤ 12.(1) 망부석 설화 (2)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상황이 드러난다. 13.① 14.③ 15.④ 16.② 17.③ 18.① 19.③ 20.⑤ 21.③ 22.② 23.⑤ 24.① 25.⑤ 26.⑤ 27.③ 28.죽음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러내어 단절감을 강조한다. 29.⑤ 30.③ 31.②

4-(4) 만세전

1.③ 2.① 3.③ 4.③ 5.④ 6.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은 뒤 '나는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현실과 조선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7.④ 8.① 9.① 10.② 11.①⑤ 12.④ 13.③ 14.국권 상실의 상태 15.④ 16.⑤ 17.④ 18.④ 19.⑤ 20.② 21.⑤ 22.③ 23.① 24.④ 25.① 26.③ 27.④ 28.① 29.③ 30.④

4-(4) 백록담

1.② 2.① 3.③ 4.③ 5.③ 6.③ 7.㉠는 뽕꽃채(꽃) 또는 꽃이고, ㉡는 이슬 또는 물방울이다. 8.① 9.① 10.② 11.④ 12.③ 13.⑤

4-(4) 광장

1.② 2.⑤ 3.밀실과 광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4.⑤ 5.② 6.③ 7.② 8.⑤ 9.④ 10.③ 11.③ 12.(1)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이다. (2)㉠전

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서술한다. 13.② 14.③ 15.④ 16.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모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7.③ 18.②

4-(4) 원고지

1.③ 2.④ 3.② 4.④ 5.③ 6.① 7.④ 8.(1)교수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2)교수가 원고를 쓰지 못해 돈을 못 벌게 될 것을 걱정한다. 9.③ 10.② 11.③ 12.⑤ 13.① 14.⑤ 15.④ 16.③ 15.④ 16.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모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7.③ 18.② 19.② 20.③ 21.③ 22.④ 23.⑤ 24.④ 25.② 26.③ 27.③ 28.⑤

4-(4) 버

1.③ 2.① 3.③ 4.② 5.④ 6.① 7.②

4-(4) 내 여자의 열매

1.② 2.② 3.②

5. 다시 느티나무가

1.⑤ 2.깨달음을 준다. 공간적 배경을 형성한다. 3.② 4.④ 5.③ 6.① 7.⑤ 8.① 9.③ 10.(1)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 공간적 배경을 형성한다. (2)아라비아의 사막, 열사의 끝

5. 바퀴벌레는 진화 중

1.③ 2.① 3.⑤ 4.⑤

5.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1.③ 2.⑤ 3.④ 4.③

- 끝 -

4-(1) 주몽신화

1.①

㉔: 주몽 어머니의 신이함임.

2.①

▶ 주몽과 어머니가 이별할 때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는 것으로 보아 농경이 신성시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②

▶ (나)는 주인공이 아닌, 하백과 해모수의 도술 시험임.

5.④

ㄱ: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로 신적인 존재로 보기 어려움.
 ㄷ: <보기1>에서 고난과 시련은 없음.
 ㄹ: <보기1>에 주인공인 단군왕검의 비범한 능력이 제시된 것은 아님.

6.④

▶ ㉔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임.

8.⑤

▶ ㉔(주몽)은 ㉕(금와 왕)가 시키는 일(말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일단 후일(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말 기르는 일을 계속하였다.
 ㉑ ㉒(해모수)는 구혼 상대에게 중매를 보내는 예를 갖추지 않아 상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㉓ ㉔(해모수)는 유화를 왕비로 삼으려 함.
 ㉔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은 주몽임.
 ㉕ ㉖(주몽)가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그를 마목(馬牧)에 버려 제거하려 한 이들은 ㉗(금와 왕)의 아들들임.

9.①

▶ ㉘: 주인공은 하늘의 혈통인 부계(父系)와 물의 신인 모계(母系)의 혈통이 결합하여 태어났다.

11.⑤

▶ ㉙(주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을 ㉚(금와 왕)의 자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사("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㉙(주몽)에게 시련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㉑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변경한 이는 ㉒(해모수)이 아니라, ㉓(부여 왕)임
 ㉔ ㉕(해모수)의 장인은 ㉖(해모수)에게 자신이 화가 난 이유(중매 없이 구혼 함)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㉗ ㉘(금와 왕)이 아닌, ㉙(주몽)과 그의 어머니의 지혜를 일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 모두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㉚ ㉛(주몽)이 햇빛을 통해 잉태된 것은 태양 숭배 사상이 아닌,

하늘의 혈통임을 드러냄.

13.③

▶ 민중에 의해 구비 전승되어 온 집단 창작물이다.

14.⑤

▶ ㉜: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주몽이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알 수 있다. ㉝: 주몽과 어머니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모두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ㄱ.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ㄴ.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15.④

▶ 조력을 받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㉞임. ㉞의 '오이, 마리, 협보'는 주인공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같이 떠나는 인물들임.

16.②

▶ 주몽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했다는 서술은 영웅의 비범함을 나타내어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설정이다.
 ㉑ 울음이 컸다는 것만으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없음.
 ㉒ 왕이 마목을 돌아본 후 주몽에게 아뢴 말을 준 것은 주몽을 시험하고자 함임.
 ㉓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하여 오곡의 씨앗을 받은 것은 농경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임.
 ㉔ 태자 대소가 주몽을 두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은 후환이 두려워서임.

17.⑤

▶ 단군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없음.

21.③

▶ 파리들이 주몽의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게 된 부분은 주몽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게 되는 계기에 해당함.

23.④

▶ 주몽이 말을 깨고 나오는 것은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됨.

25.④

▶ 시적 대상(기파랑, 고려 왕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6.②

▶설화와는 상관없음.

28.②

▶㉠ :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29.④

▶㉡ : 태자 대소에게 능력을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주몽의 비범한 능력으로 후환이 두려워 주몽이 위기에 처한 것임.

30.④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1) 공무도하가

2.⑤

▶㉢만이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를 나타내면 나머진 위 시들처럼 임에 대한 정서를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마음이 어리석으니~>: 임을 기다리는 마음
- ② <천만리 머너먼 길에~>: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
- ③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
- ④ <배꽃이 비 내리듯~>: 임을 그리는 마음
- ⑤ <청산 속에 흐르는~>: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

▶오타,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①

▶(가)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속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3.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③

▶(나)는 개인 서정의 노래임.

6.③

▶ㄴ.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음. ㄷ. 정서가 걱정과 초조에서 체념과 한탄으로 변화한다. ㄹ. 감정은 간접 표출됨.

▶응, 헛갈리지 마!◀

자조 vs 체념 vs 한탄 (★)

- *자조: 자기를 비웃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7.④

▶㉣는 고달픈 세상살이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함을 나타내면 나머진 (가)처럼 임에 대한 정서를 나타냄.